

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,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본격 추진

고령농업인 생활 안정과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목표

윤호노 기자 hono77@hanmail.net

기사입력 2025.01.21 11:14:36 최종수정 2025.01.21 11:14:36



-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전경.

© 농어촌공사

[충북일보]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025년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사업을 추진한다.

21일 지사에 따르면 이 사업의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,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,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된다.

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는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할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제도다.

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,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, 매도 조건부 임대인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.

전승민 지사장은 "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"며 "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충주 / 윤호노기자

Copyright @ 충북일보 & inews365.com
